

#해시태그

해(解,답)가 없는
시장을
태연하게
그리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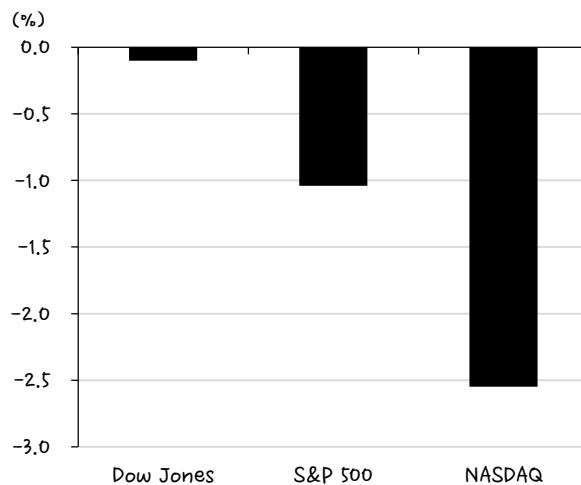


주식전략/시황. 한대훈 / 3773-8515, handaeoon@sksecurities.co.kr

2021/05/11

또 다시 -2% 넘게 하락한 나스닥

미국 주요지수의 일일 낙폭 비교



자료: Bloomberg, SK 증권

국제유가 추이



자료: REFINITIV, SK 증권

나스닥이 -2% 넘게 하락했다. 지난주 발표된 미국 4 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며 부진했고, 이에 따라 연준(Fed)의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증시가 반등한지 하루만이다.

나스닥의 하락 요인은 크게 세가지다. 우선, ①가격부담이다. 고용지표 부진으로 우려가 낮아졌지만, 연준이 긴축에 나설 경우 저금리의 수혜로 가파르게 상승한 성장주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.

②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작용했다.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 고조와 인프라 정책이 인플레 압력을 높이고 있다. 게다가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(Colonial Pipeline)의 사이버 공격소식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점도 인플레 압력을 높였다.

③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주로의 로테이션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. 나스닥이 2% 넘게 하락했지만, 다우지수는 어제 장중 한때 35,000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, 어제의 낙폭은 과도했다는 판단이다. 연준(Fed)이 이미 여러 차례 조기긴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고, 실제로 4 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연준이 긴축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. 다만,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만큼 이번주 예정된 미국 4 월 CPI 발표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(5/12 예정)

한편,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(Colonial Pipeline)의 사이버 공격소식은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는, 새로 부각된 이슈다.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송유관 시설의 가동이 중단됐고, 이로 인한 유가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.